언젠가 하느님과 이야기 하고 싶어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하느님에게 말하였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가시덤불을 태우소서 하느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셨듯이 벽을 허무소서 하느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갈릴리호수에서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했듯이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소서 하느님.

그러면 제가 당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
그 사람은 가시덤불위에 벽 가까이에 호수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다.

한편 하느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느님은 불을 보내셨다.
가시덤불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불을 보내셨다.

하느님은 벽을 무너뜨렸다.
벽돌담이 아니라 죄의 벽을 무너뜨렸다.

하느님은 폭풍을 일으켰다.
호수가 아니라 영혼 안에 폭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하느님은 그 사람이 응답하기를 기다렸다.
기다렸고 기다렸고 또 기다렸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가시덤불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양심이 아닌 벽돌담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영혼이 아닌 호수를 바라디보고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사람이 하느님에게 물었다.
'하느님 당신은 힘을 잃었습니까?'

하느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듣기를 잊어버렸느냐..?'

송봉모 신부님의 `성서대학` 강의에서.....

Created by trial version, http://www.pdf-convert.com